

“전기차 드라이버 모셔라” 카드업계, 할인·적립혜택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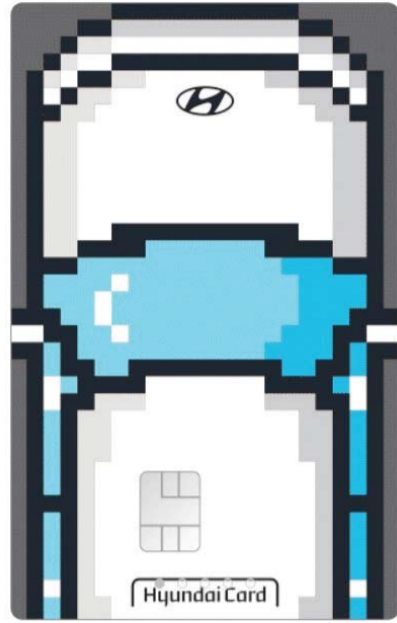
범용 카드에 전기차 혜택 탑재
친환경 중시 소비 흐름 변화
전월 실적 따라 할인 혜택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카드업계가 관련 혜택을 담은 카드를 출시, 오토 드라이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과 ‘일렉트릭 파이드 G80’ 등 신형 전기차 모델이 잇따라 공개된 데 이어 신차 출고 지연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전기차 수요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부분의 전업 카드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기차 오토 드라이버 잡기’에 나섰다. ESG 경영의 맥을 이어가면서 전기차로 인한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혜택을 담은 범용 카드에도 전기차 관련 혜택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기차 관련 혜택을 주는 카드는 대부분 자동차 구매 전용 상품이나 친환경 전용 상품



현대카드가 내놓은 ‘EV카드’와 ‘기아 멤버스 전기차 신용카드’는 각각 전기차 충전 시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으로만 출시됐다.

우리카드가 지난 1일 선보인 무제한 포인트 적립 상품 ‘바스킷 카드’에는 EV 인프라(Infra), 테슬라 수퍼차저 이용 시 결제 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혜택이 담겼다. 우리카드는 지난 9월엔 롯데렌터카 전용 PLCC 상품인 ‘롯데렌터카 신차장 EV+ 우리카드’

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의 정식 US’의 경우 전기차, 수소차 충전 시 결제금액의 50%를 모아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신한카드가 SK렌터카와 함께 출시한 ‘신한카드 MY CAR’는 전기차 충전 요금의 30%를 월 1만원 한도로 할인해



‘신한카드 EV’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신한카드

준다. ‘신한카드 EV’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 한도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30~50%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이 30만~59만원일 경우 30%, 60만원 이상일 경우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의 ‘현대 EV카드’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요금의 최대 100%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월 1만 포인트까지, 80만원 이상 실적을 채운 경우 월 2만 포인트까지 적립된다.

‘기아 멤버스 전기차 신용카드’는 전기차 충전 시 당월 이용금액에 따라 30~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당월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충전금액의 70%, 최대 월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카드로 EV 신차를 구입한 경우

보험 가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연말까지 EV 신차를 구입 고객 중 기아 멤버스 전기차 신용카드로 1000만원 이상 결제하고 세이프오토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EV세이프티케어 가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전기차의 경우 재구매 시 보조금이 다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전손 사고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비용 부담이 있다. EV세이프티케어는 전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전손보험금과의 차액과 부대비용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KB국민카드의 ‘EVO티타늄카드’는 전기·수소차 충전 시 5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만점,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2만점, 150만원 이상은 3만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에 따라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도 변화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업계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한편 ESG 경영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소환 기자 think@metroseoul.co.kr

조용병 “친환경 전환 가속화, 금융의 역할”

〈신한금융 회장〉

COP26의 ‘한국 홍보관’서 발표
탄소중립에 관한 금융 전략 소개

“탄소중립에 대한 금융의 역할은 친환경 전환의 가속화에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한국 홍보관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한국의 민간금융사를 대표해 ‘한국 홍보관’을 방문한 각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금융 전략과 활동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이 동아시아 금융

최초로 선언한 탄소중립 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자산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측정 방법과 감축 목표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신한금융이 진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평방지역 국가에도 신한 탄소중립 전략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회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금융의 역할은 친환경 전환의 가속화에 있다”며 “탄소중립 실행이라는 첫 바퀴를 돌릴 때에는 큰 힘이 들지만, 각 분야의 힘을 합친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조용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이하 COP26)의 ‘한국 홍보관’에서 신한금융그룹의 탄소중립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동양생명, 3분기 누적 당기순익 2498억

전년대비 131.5% 증가

동양생명이 전분기에 이어 올 3분기까지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양생명은 10일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4.5% 증가한 30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31.5% 증가한 2498억원을 달성했다.

수입보험료는 올해 3분기 총 3조 6447억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이 가운데 보장성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3.0% 성장한 1조 7935억원을 기록하는 등 보험이익이 안정적으로 늘면서 주요 영업지표도 개선됐다.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한 36조 4548억원, 운용자산은 3.0% 증가한 31조 6906억원을 기록했다. 운용 자산이익율은 전년 동기보다 54bp(1bp=0.01%포인트) 상승한 3.64%로 나타났다. 지급여력(RBC) 비율은 223.6%로 시장금리 상승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장성 수입보험료 확대, 운용자산이익율 개선 등 안정적인 이익 창출 근간을 바탕으로 일회성 이익도 일부 반영되면서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대’ 원칙 아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NH농협은행, SNS 팔로어 300만명 달성

NH농협은행이 SNS 팔로어 300만 명을 달성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 본점 스튜디오에서 SNS 팔로어 300만 기념 축하 행사를 유튜브 라이브로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유튜브 라이브는 권준학 은행장과 직원 홍보모델을 비롯해 NH튜버 등이 출연해 SNS 팔로어와 함께 약 40분 동안 진행됐다.

광고모델 ▲강하늘 ▲한소희 ▲프로 골퍼 문경준 ▲박민지 ▲당구팀 NH그린포스 등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농협은행 SNS와 함께한 고객 사연 소개, 농협은행 관련 퀴즈를 푸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엔 약 3000여명의 고객이 참여해 1만 3000건의 댓글을 남기며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사연 응모자 중 1등으로 뽑힌 박규희 고객은 전화 연결을 통해 농협은행 유튜브에서 우연히 ‘세대를 이어 함께하는 농협은행’ 영상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 같아 깊게 공감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권준학 은행장은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 떨렸지만 농협은행과의 소중한 인연을 듣고 퀴즈도 풀면서 고객과 만나 소통할 수 있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다시 한번 농협은행 SNS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2014년에 페이스북, 2017년에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2019년부터 유튜브 활성화를 본격 시작했다.

/권소환 기자

우리은행

‘원하는 LCK’ 페이지 오픈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에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팬을 위한 ‘원(WON)하는 LCK’ 전용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WON하는 LCK’ 전용 페이지는 LCK 관련 다양한 이벤트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우리WON뱅킹에 가입한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WON하는 LCK’ 전용 페이지 이용 고객은 ▲‘LCK 탭’에서 팀 정보 및 선수 정보, 팀 순위를 확인하고 ▲이벤트 탭에서 특별이벤트 참여로 보상 수령이 가능 ▲금융 탭에서 각종 금융상품을 조회 ▲MY 탭에서는 등급 확인과 아이 템 교환 등이 가능하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한銀, ‘신한 커리어온’ 1기 졸업식 개최

특성화고-스타트업 인재 매칭 솔루션

신한은행이 특성화고 학생들과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신한 커리어온(Career On)’ 1기의 졸업식을 가졌다.

‘신한 커리어온(Career On)’은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 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스타트업 인턴 참여, 취업역량교육,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적합한 인재 매칭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셜임팩트 창출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우수한 인재를 찾는 스타트업 70개사와 실무 경험을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 300여명을 ‘신한 커리어온(Career On)’ 1기로 선발하고 스타트업 인턴십 및 현장실습, AI기반



‘신한 커리어온 1기 졸업식’ /신한은행

직무 적성검사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및 홍보 및 마케팅 등 스타트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직무에 대한 취업역량 교육을 제공했다.

‘신한 커리어온’ 1기 졸업식은 ‘신한 커리어온을 기억해’를 주제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의 축사, 1기 수료생 소감 발표, 우수 교육생 및 스타트업 시상 등 교육 과정을 성공적 수료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나유리 기자